

심리학과 교육의 발전 방향

정진경

충북대 심리학과 교수



1. 머리말

각 사회마다 그 발전단계에 따른 사회적 필요성으로 인해 새로운 학문 분야가 생겨나기도 하고, 기존의 학문 분야 중에서도 어떤 분야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다른 분야는 쇠퇴하기도 한다. 필자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아전인수 격으로 보일 우려가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심리학은 이제 때를 만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격변기를 지나 어느 정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웬만큼 기반이 잡히면, 사회적으로 '삶의 질'의 문제가 떠오르게 되고 사람들은 개개인의 적응과 자아실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곧 심리학적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심리학은 다른 어느 학문보

다도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참여 등 그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대학의 학과 규모나 전국적 학회의 규모가 인문사회과학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무수한 이론적 연구가 각종 학술지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심리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는 심리학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예로, 어느 정도는 독특한 미국적 현상이기도 하나 많은 선진국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심리학의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학교와 기업체 등에서 각종 심리검사가 개발·사용되고 있고,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기관들이 갈수록 늘고 있으며, 폭력·약물 남용·지역감정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해결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심리학 전공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사회문제의 해결에 힘을 보태려는 뜻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연수만을 받고 무보수로 상담원을 하는 경우는 좀 나은 편이고, 완전히 장삿속으로 말도 안 되는 검사와 교재를 만들어 쓰면서 심리학을 사칭하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 심리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정확하게 그리고 넓게 확산시켜서 심리학 전공자들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심리학 전공자들을 전문적인 인력으로 키워내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국의 심리학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 손으로도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가, 1980년대에 들어 대학이 급속히 팽창할 때 대부분의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에 설치되어 이제는 전공자 수가 많이 늘었다.¹⁾ 그동안 꾸준히 교수의 확보와 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이제 초기보다는 여건이 좋아졌으나, 아직도 다른 활발한 학과들에 비해 소규모에 머물러 있다. 교수 수가 보통 50~80명에 이르는 미국 대학의 큰 심리학과와는 비교할 엄두도 못 낸다.

심리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아직은 매우 미흡하여 졸업생의 사회진출도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기업체의 신입사원 모집에서 전공분야를 좀 더 개방하는 추세라 점차 여건이 좋아지리라 생각되기는 하지만, 전공 지식을 살려서 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글에서는 심리학이 처한 이러한 여건에서 심리학 교육의 주요 당면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심리학 교육의 당면과제와 발전 방향

1) 연구방법론 교육의 강화

심리학은 인문사회과학의 다른 분야들과는 달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의 사용을 특히 중시한다. 심리학에서 다루는 연구의 주제는 다른 학문들과 겹치기도 하나, 그러한 주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심리학이 독특성을 견지하는 것은 그 연구방법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방법론은 심리학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심리학 교육에서도 연구방법론은 마땅히 중시하여야 한다. 이는 전공자로서 심리학적 시각으로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유명한 이론 몇 가지를 더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지식을 소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산출해내는 전문가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연구방법론의 교육이 어찌하면 가장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험, 관찰, 검사, 심층 인터뷰 등의 주요 방법론을 학생들이 골고루 배우고 실습을 통하여 익혀 나가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강의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 설계 및 통계, 심리 검사 등은 필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목들은 학생들이 어렵다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강의 진도를 모든 관련 주제를 포괄하도록 무리하게 짜지 말고 아쉽

1) 차재호(1990), "심리학과 특성 및 발전방향", 『대학교육』, 44호를 참고할 것.

더라도 주제를 줄이고 저변에 흐르는 논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면 상당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연구방법론의 교육은 방법론 과목만이 아니라 거의 전 과목에서 할 수 있다. 실제로 심리학과와 많은 과목들은 '○○심리학 및 실험(실습)'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실험 실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를 통해서 방법론을 익힐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험 실습 과제에 대한 교수들의 연구 개발과 실험 실습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심리학과들이 몇 개 안 되는 실험실과 빈약한 실험도구들만을 가지고 고전하고 있다. 이는 큰 대학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실험 실습 시설을 갖추고 있는 미국 대학의 심리학과들과 비교하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시설 미비 현상은 심리학에 대한 대학 내의 인식 부족 때문에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인문사회과학에서 왜 심리학과만 실험 실습시설이 필요하냐는 것인데, 부족한 학내의 공간과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심리학과의 독특한 요청은 무시되기가 쉽다. 이러한 애로사항 때문에 어느 교수는 아예 실험 실습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과로 옮겨 가는 것이 어떠하냐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앞으로 심리학과가 실험 실습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에 대한 대학과 교육부의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각 학과는 물론 학회 차원에서도 꾸준히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간단한 실험도구나 검사지만을 가지고도 훌륭한 실험을 할 수 있고, 아쉬우나마 녹음기 하나만 있으면 우선 상담 실습이 가능하며, 사

회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실험도구가 없이도 실험이나 현장관찰, 사회조사 등을 꽤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특정 연구주제에 필요한 검사나 설문지를 모든 과정을 거쳐 제대로 제작해 보는 것도 좋다. 그런데 실험 실습을 제대로 하려면 교수들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기 때문에 담당 과목의 수가 많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강의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구설계 및 통계 등의 방법론 과목을 통하여 심리학적 연구의 기본이 되는 과정을 배우고, 다양한 과목의 실험 실습을 통하여 이를 익히면, 졸업 후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여도 심리학 전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전문성을 발휘하리라고 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방법론을 맹신하지 않고 그 한계를 인식하며 때로는 대안적인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는 안목까지 키운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2) 현실문제 해결의 강조 -

이론과 응용의 적절한 조합

심리학 내의 다양한 분야들을 흔히 기초 또는 이론 분야와 응용 분야로 나누는데, 상담·임상·산업심리학 등을 응용 분야라고 한다. 그러나 '최선의 응용은 훌륭한 이론'이라는 말도 있듯이 실제 심리학의 이론 분야들 중 응용이 안 되는 분야는 없다. 앞으로 심리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심리학 전공자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 가려면 심리학 교육, 특히 학부 과정의 심리학 교육은 이론과 응용의 적절한 조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응용에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응용 분야로 정의하는 몇 과목을 빼고 대부분의 과목들은 이론 위주로 강의 내용이 구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수가 한 과목의 강의계획표를 짜려면 최소한 그 분야의 주요 주제들만은 모두 포함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주요 주제들만 넣어도 그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려면 한 학기가 모자란다. 그러다 보면 대개 교재의 가장 뒷부분에 실려있는 응용에 대한 장들은 계획표에서 빠지게 된다. 필자 자신도 매학기 강의계획표를 짤 때마다 앞의 이론 부분에서 뭐 뭘 것이 없을까 하고 몇 번씩 훑어보곤 하지만, 더 이상 뭘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문제는 결국 주요 주제들을 다루면서 각 주제마다 그 이론들의 응용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응용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과목의 강의 내용 구성에서의 이러한 고민과 비슷한 고민이 학과의 커리큘럼 구성에도 존재한다. 심리학이 다루는 분야가 워낙 폭 넓다 보니 한 분야에 과목 하나 둘씩만 넣어도 강의 수가 학교의 규정을 넘게 되어 응용 분야의 새로운 과목을 넣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학과를 특성화하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실제로 몇 대학에서는 산업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등을 설치하여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졸업생들이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비율도 매우 높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심리학과가 특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기존의 심리학과가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발 맞추어 필요한 인력을 키워내려면 기존 과목의 과감한 삭제와 새로운 과목의 적극적인 개설이 필요하다.

새로운 과목은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간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선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난무하는 폭력 문제, 10대의 성 문제와 약물 남용 문제, 갈등을 빚고 있는 성역할, 지역차별 문제, 심각한 환경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교통 문제,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어린이, 인간과 기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문제, 새로운 정보통신 양식으로 변화되어가는 인간관계, 그리고 통일과 화합을 이루는 과제까지 심리학의 각 분야들이 힘을 합하여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과제들은 수없이 많고 자꾸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학생들과 더불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그들의 심리학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높이고 배운 지식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특히 학부 교육은 학생들을 모두 심리학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세부적인 이론 교육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기초가 되는 이론과 그의 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목들은 선택과목으로 하되 수강생의 학년을 제한하지 않고, 격년제로 설치하는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고안해 볼 수 있다.

3) 대학원 교육의 확대와 강화

학부 졸업생도 전공을 살려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심리학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일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대학원 교육이 필요하다. 상담이나 임상 등의 분야에서는 석사를 마친 후에야 전문가로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석사학위를 요하는 일

들이 늘어나고 있다. 취업을 한 학부 졸업생들이 일을 하다보니 더 공부할 필요를 느낀다고 대학원에 오는 경우가 많다. 석사학위 소지자들이 많이 배출되면, 현재 사회적 인 필요는 있으나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여 비전공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에서는 전문가만이 아니라 연구자, 학자를 키워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학교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소와 현장에서 심리학을 연구하고 강의할 사람이 태부족인 우리 현실에서, 연구자의 양성도 전문가의 양성 못지 않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이 학부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질적인 도약을 할 필요가 있다. 학부에서 부족했던 본격적인 이론 교육이 대학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론을 세부까지 파고 들어가 보며, 그에 대한 비판들도 꼼꼼히 알아 보고, 그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였고 이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살펴 보는 등의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깊이가 생겨날 것이다.

학과의 교수수가 7, 8명을 넘기 힘든 현실에서 내실있는 대학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의 대학원과 학점인정제 등을 통하여 교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적으로 대학원의 설치가 늘어나고 대학원생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행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는 교류하려 하여도 서로 비슷비슷한 대학원 개론 수준의 과목들만이 설강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데,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좀 더 전문성 있는 과목들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다양한 교육 방법 및 자료의 개발

교육 방법을 강의 위주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 등을 권장하고, 시청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최근 대학평가제의 도입과 더불어 모든 학과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일이지만, 심리학 교육에서는 다양한 교육 방법 및 자료의 개발이 특히 중요하다. 학문의 특성상 연구에 각종 재료와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실험 실습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강의와 더불어 조를 짜서 한 학기내 조사나 실험을 하게 하고 이를 발표한 후 토론을 시키는 방법은 이미 많은 교수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실험실 실험에 국한시키지 말고 사회조사, 참여관찰, 심층면담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슬라이드, 비디오, OHP, 모형 등의 시청각 교육 자료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실험의 과정과 결과를 수록한 시청각 자료를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는 위에서 논의한 방법론 교육의 강화와 응용 교육의 강조와도 연결되는 것이므로 심리학 교육에서는 특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부제가 도입되면 개론 과목을 통하여 신입생들에게 심리학을 바로 알리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다양한 시청각 교육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교육 방법을 도입하면, 심리학의 학문적 특성을 알리고 매력을 느끼게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청각 자료들은 교수 각자가 일일이 제작하기는 어렵다. 외국에 주문하여 구입이 가능한 것도 있으나 가격이 매우 비싸고 우리말 더빙이 필요하여, 이것도 각자가 추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자료 등의 도서관이 생겨서 빌려 쓰거나 가능하다면 복사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심리학회 또는 학과 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맺는 말

이상에서 심리학과와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몇 가지를 논의하였다. 그 외에도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으나, 심리학과만의 독특한 과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를 생략하였다. 이러한 과제 들로는 교수를 총원하여 수업부담을 줄이고 강의에 전문성을 더할 수 있게 하는 것, 학과와 수와 규모를 확대하고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공간을 비롯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 전공자들의 진로를 개척하고 취업 기회를 늘리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 아래 기존의 커리

클과 교육방식에 묶이지 않고, 사회적 요청에 맞는 새로운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자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심리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인문사회과학으로 분류되지만 독특한 연구방법론과 실험 실습, 광범위한 사회적 적용 등을 해야 하는 심리학과는 그 특성과 필요성을 대학 내와 교육부, 사회 일반에 새로이 인식시키지 않고서는 위에서 논의한 방안들을 실행하기 어려우므로, 활발한 사회적 활동과 홍보를 통하여 심리학에 대한 인식을 꾸준히 제고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정진경/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심리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 대학 연구원을 지내고 현재 충북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학생생활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태도, 고정관념 및 성역할에 관련된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